

# 전남도립대-국립목포대, 통합 작업 본격화 한다

내일 대학통합추진본부 현판식 내달 20일까지 세부합의안 마련 교육부에 통합신청서 공식 제출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목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전격 합의한 데 이어 전남 유일의 공립대인 전남도립대가 목포대와의 통합 작업을 본격화한다.

양 대학은 오는 12월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기로 하면서 '1도1국

립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립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교내 5학관에서 총장 직무대행인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과 통합추진공동위원, 통합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통합추진본부'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 예정인 추진 본부는 대학 통합과 관련해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대내·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본방

향 합의 내용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사안을 조정하고 도립대의 입장을 확립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달 20일까지 주2회에 걸친 분과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협의 및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담양·장흥캠퍼스 특성화와 입학, 교육·연구·학생·산학, 행정·인프라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거친 통합 세부 합의안을 확정된 후 연내 교육부에 '국립 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신청서'를 정식 제출할 방침이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늦어도 2026

학년도 대입전형계획 발표 시점인 내년 4월 내로는 교육부에서 대학 통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립대는 지난 7월 통합 관련 찬반 투표에서 전임 교원 100%, 직원 100%, 재학생 98.5%의 압도적 찬성 응답을 얻었으며 현재 교육부 통합 매뉴얼 5단계 중 3단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이 완료되면 2년제와 4년제를 혼합한 전주기적 교육과정을 도입, 글로벌 기능인력훈련센터 및 국제연수원 등 부속 기구 설치와 지역 특화 인재 양성·신산업

창업 인력 배출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목포대와 통합을 위해 계속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통합을 구체화하기 위해 통합추진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구성원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논의를 진행하는 등 대학 통합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2026학년도에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 북구서 홀로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2명 고독사

광주 북구에서 홀로 거주하는 중·장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30분께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홀로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A(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사는 아들이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을 부탁한다"는 A씨 모친의 요청을 받은 경찰과 주민센터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올해 중순께 북구에 전입했던 A씨는 지난 20일 두암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해 동에서 나눠주는 김장김치를 수령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질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20분께 풍향동의 한 원룸에서도 B(58)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형제들과 관계를 단절한 채 혼자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 등 유가족은 시신 인수를 거부해 풍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B씨의 공영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광주의 1인 가구 수는 △2021년 21만2385명 △2022년 22만1464명 △2023년 22만8970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윤준명 기자

## “전남일보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KIA타이거즈 'V12' 기념 이범호·김선빈 본사 방문 상호 우승 기념품 전달 등 "내년 다시 정상설 것" 다짐

"전남일보 독자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내년에도 이 성과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열두 번째 우승의 위업을 달성한 KIA타이거즈 '제11대 사령탑' 이범호 감독과 '한국시리즈 MVP' 내야수 김선빈이 내년에도 정상에 다시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범호 감독과 김선빈은 26일 광주 동구 제봉로에 위치한 전남일보 사옥을 방문했다.

이들은 박성원 편집국장에게 '2024 KBO리그 통합 우승' 기념 배트 등 기념품을 전달했고, 박 국장은 우승 기념 지면에 담긴 패널을 선물하며 화답했다.

이어 이 감독과 김선빈은 사진 촬영 후 유니폼과 공에 사인을 해주는 팬 서비스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이 감독은 전남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우승이라는 것이 10년, 20년이 걸려도 못할 수 있는 것인데 2017년에 선수로 우승을 하고 7년 만에 감독으로 다시 우승을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가운데)과 김선빈(왼쪽) 선수가 26일 전남일보를 방문해 박성원 편집국장과 기념품을 교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타이거즈가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성과다. 좋은 팀에서 좋은 선수들과 함께한 덕분"이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김선빈 역시 "한국시리즈가 정말 재밌었다. 1차전부터 5차전까지 같은 마음이었고 자신감이 가득 했다"며 "우리가 정말 좋은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우승과 MVP라

는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7년 만에 왕좌에 오른 KIA의 다음 시즌은 연패 도전을 향하고 있다.

이 감독은 "우승을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에 마운드로 뛰쳐나가는 것이다. 이번에는 감독이다 보니 제자리에서 방방 뛰고 말았다"며 "내년에는 감독과 코치들도 모두 뛰쳐나가서 선수들과 우승의 순간을 즐기고 싶다. 굉장히 새롭

고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남일보 독자들을 향한 감사 인사도 전달했다. 이 감독은 "올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이뤘지만 내년에는 이 성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규빈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록!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 암 벽 산 지 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